

## 중학생의 피해자 정의민감성, 적대적 귀인편향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

이 승 연\*                      이 유 미                      김 엘 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자 정의민감성, 적대적 귀인편향,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 변인들의 관계가 의도적 통제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학생 1-3학년 42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의도적 통제 수준(상·하위 30%)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집단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은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다. 한편,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 적대적 귀인편향은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하지 않았으며,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는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 때에만 유의하였다. 의도적 통제가 강한 것은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적대적 귀인편향,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정적 관계를 유의하게 약화시켰다. 본 연구는 반응적 공격성을 설명할 때 피해자 정의민감성이라는 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 정의민감성으로 인한 적대적 귀인편향과 반응적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 통제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피해자 정의민감성, 적대적 귀인편향, 반응적 공격성, 의도적 통제

\* 이 논문은 2018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임상분과)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교신저자 :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03760)

E-mail: slee1@ewha.ac.kr

중학생 시기는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발달과 함께, 가족 밖으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또래들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 욕구가 절정에 달하게 된다(김윤경, 이옥경, 2001; Ojanen, Grönroos, & Salmivalli, 2005). 따라서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적응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청소년기 초기에는 전반적 공격성 수준이 증가하며(Björkqvist, Lagerspetz, & Kaukiainen, 1992; Xie, Farmer, & Cairns, 2003), 또래집단 내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유지하려는 욕구로 인해 자신보다 약한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오랜 시간 반복해서 괴롭히는 또래괴롭힘(bullying) 역시 크게 증가한다(도금혜, 최보가, 2007; 도금혜, 최보가, 이지민, 2005; 심희옥, 2008; Cillessen & Mayeux, 2004; Rodkin & Berger, 2008). 이 때 일부 가해자들이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공격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전략적으로 함께 사용함으로써 또래들 사이에 인기가 많고 사회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일부 가해자들은 강압적 전략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며 실제 또는 지각된 위협에 충동적이고 반응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면서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고립되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Rodkin, Espelage, & Hanish, 2015).

공격성은 기능에 따라 크게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나눌 수 있다. 주도적 공격성은 자신이 원하는 이득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성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회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된다(Dodge, 1991). 한편, 반응적 공격성은 좌절이나 지각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행하는 보복적 행동을 의미한다(Fite, Rathert, Colder, Lochman, & Wells,

2012). 이러한 통제되지 않은 공격성 표출은 또래거부의 주요한 위험요인(Vitaro & Brendgen, 2012)이며 지각된 인기도, 즉, 또래들 사이에서의 명망이나 영향력이 약한 것과 관련이 있다(Stoltz, Cillessen, van den Berg, & Gommans, 2015). 반응적 공격성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어려움 뿐 아니라 불안, 우울 등 내재화 장애에 기여하며, 학업수행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Card & Little, 2006; Fite, Rubens, Preddy, Raine, & Pardini, 2013; Loveland, Lounsbury, Welsh, & Buboltz, 2007; Vaillancourt, Brendgen, Boivin, & Tremblay, 2002). 한편, 초기 청소년기의 반응적 공격성은 성인기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며, 성인기의 만성화된 행동문제, 우울, 불안, 성격장애, 전반적 적응 문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ite et al., 2013; Vaillancourt et al., 2002). 따라서 반응적 공격성의 기제를 이해하여 조기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반응적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기 초기가 반응적 공격성이 가장 강한 시기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Barker, Tremblay, Nagin, Vitaro, & Lacourse, 2006; Bas & Yurdabakan, 2012).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약하고,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 같은 초기 청소년기의 정서·행동적 특성은 중학생들로 하여금 반응적 공격성에 특히 취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안지현, 이승연, 2013).

실제로 반응적 공격성은 정서조절이나 의도적 통제 결함, 주의력 결핍, 사회적 기술 결함, 사회정보처리과정의 오류, 적대적 귀인편향,

분노반추 등 다양한 개인 내적 요인들로 설명되어 왔다(장희순, 이승연, 2013; Lobbestael, Cima, & Arntz, 2013; White, Jarrett, & Ollendick, 2012; White & Turner, 2014). 본 연구에서는 반응적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해 피해자 정의민감성(victim justice sensitivity)이라는 변인에 주목하였다. 이는 반응적 공격성을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좌절이나 지각된 위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의 부당한 대우 역시 좌절이나 위협으로 경험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람들은 부당함이나 불공정을 얼마나 쉽게, 빈번하게 지각하는 지에 있어 개인차를 지닌다. 정의민감성(justice sensitivity)은 불공정에 대한 지각에서 보여지는 개인차로,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성격적 특징으로 정의된다(Schmitt, Neumann, & Montada, 1995). 정의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불공정을 더 쉽게, 빈번하게 지각하며, 불공정에 대한 강한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Bondü & Richter, 2016). 이러한 정의민감성은 불공정이 지각되는 관점에 따라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정의민감성으로 구분된다(Bondü & Elsner, 2015).

먼저, 가해자 정의민감성(perpetrator justice sensitivity)은 자신이 타인에게 가하는 부당함을 인식하고 죄책감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자기처벌의 필요성을 느끼는 성격적 특성으로 정의된다. 한편, 목격자 정의민감성(observer justice sensitivity)은 타인이 다른 타인에 의해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불공정성을 인식하고 이에 분개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상으로 반응하게 되는 특성으로, 가해자 정의민감성과 목격자 정의민감성은 모두 기본적으로 이타적이며 타인지향적인 성격을 지닌다.

반면,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자기중심적인 관심에서 출발하며, 자신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나 약간의 의심스러운 단서에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여 스스로를 피해자로 더 쉽게 인식하고, 그 상황에 대해 분노와 적개심, 보복욕구를 느끼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Baumert, Otto, Thomas, Bobocel, & Schmitt, 2012; Bondü & Richter, 2016; Mohiyeddini & Schmitt, 1997). 이 때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자신이 경험한 일반적인 불행한 결과(예, 자신의 불운, 상대의 합리적 의도로 인한 결과)에 대한 민감성이라기보다는 상대의 비열한 의도에 대한 민감성을 뜻한다(Gollwitzer & Rothmund, 2011).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보다는 ‘신뢰할 수 없음’을 신호하는 단서에 훨씬 더 민감하며, 그 결과 상대에 대해 의심하고, 타인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비협조적으로 행동하게 된다(Gollwitzer, Rothmund, & Süßenbach, 2013). 따라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비협조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들은 상대의 비열한 의도를 부호화 한 결과 생겨난 자기방어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Gollwitzer & Rothmund, 2011).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아동·청소년 집단에서 정서문제, 품행문제, 과잉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Bondü & Elsner, 2015), 신체적, 관계적 공격성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ondü & Krahé, 2014). 한편 피해자 정의민감성의 개념적 특성상,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것은 특히 반응적 공격성에 취약하게 만들며,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인 연구 모두에서 반응적 공격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Bondü & Krahé, 2014; Bondü & Richter,

2016). 한편, 소녀가 소년에 비해 가해자나 목격자 정의민감성이 더 높았던 것과 달리, 피해자 정의민감성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Bondü & Elsner, 2015; Bondü & Krahé, 2014).

또한 연령차가 유의하지 않았던 가해자나 목격자 정의민감성과 달리,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10-17세 사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Bondü & Elsner, 2015). 이는 추상적 사고 능력의 발달로 정의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되는 이 시기에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부당함이나 불공정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불공정의 단서에 특히 민감하게 되지만, 아직 적절한 대처전략은 부족하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부당한 대우나 그러한 단서에 정서적으로 크게 반응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Bondü & Elsner, 2015). 한편,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18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chmitt, Baumert, Gollwitzer, & Maes,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피해자 정의민감성에 초점을 맞추어,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Dodge(1986)의 사회정보처리 모형(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에 따르면, 공격적인 아동·청소년은 사회정보처리 과정에서 왜곡이나 지각적 편향을 보인다. 특히, 반응적 공격성은 타인의 의도를 인식하는 부호화 단계와 이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해석 단계에서의 왜곡된 정보처리와 연관이 깊는데(Crick & Dodge, 1996), 모호하거나 적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적대적 귀인편향은 지각된 위협이나 좌절에 대한 반응적 공격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illessen, Lansu, & van den Berg, 2014; Crick & Dodge, 1996; de Castro, Merk, Koops, Veerman, & Bosch, 2005).

적대적 귀인편향은 피해자 정의민감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Sensitivity to Mean Intentions (SeMI) model(Gollwitzer & Rothmund, 2009)에 따르면,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신뢰할 수 있음’보다는 ‘신뢰할 수 없음’을 신호하는 단서에 지나치게 민감하도록 만들며, ‘신뢰할 수 없음’의 탐지 후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특정한 사회인지적 도식을 채택하게 된다. 이를 의심하는 마인드셋 가설(suspicious mindsets hypothesis)이라고 하는데, 의심하는 사고방식이 활성화될 경우 아주 경미하거나 의미 없는 사건조차도 비열한 의도를 지닌 증거로 잘못 해석되고, 타인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기화되며, 자신의 비협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게 된다(Gollwitzer et al., 2013). 이 모델에서 적대적 해석은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비협조적 행동 간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정보처리 모형을 대입하여 피해자 정의민감성으로 인한 반응적 공격성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데,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신뢰할 수 없음’을 신호하는 단서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부호화하게 되고, 그 결과 상대의 의도를 비열하고 적대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반응적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한편, SeMI model에 따르면, 피해자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마인드셋의 활성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협조적이고 더 나아가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지만, 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상황적 보호요인 역시 존재한다(Gollwitzer

& Rothmund, 2009). 따라서 본 연구 역시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적대적 귀인편향을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반응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에 주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조절변인은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이다. 의도적 통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주의를 지속시키거나 전환하며, 정서적, 행동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에서의 개인차를 반영하는데(Rothbart & Bates, 2006), 주의의 조직화, 우세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거나 필요한 대안적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포함한다(Posner & Rothbart, 2000). 의도적 통제는 3세 이후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하며, 초기 청소년기에 실행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되면서, 자발적이며 의도적인 자기조절능력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Muris, 2006; Vijayakumar et al., 2014). 따라서 의도적 통제는 중학생 시기에 발달적으로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적인 생리적 조절체계의 영향으로 환경적 자극에 즉각적,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비자발적 통제와 달리, 의도적 통제는 타고난 기질적 측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나 심리교육 및 치료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치 있는 변인이다(Eisenberg et al., 2005; Rathert, Fite, & Gaertner, 2011). 게다가, Wilkowski와 Robinson(2010)의 특성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통합적 인지모형(integrative cognitive model, ICM)에 따르면, 의도적 통제는 공격적 행동 경향성을 억제하고, 상황을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자동적 경향성을 극복하도록

돕는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의도적 통제가 약한 것은 아동기, 청소년기의 외현화 문제를 직접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Eisenberg, Spinrad, & Eggum, 2010), 여러 종단연구에서 의도적 통제는 현재의 공격적 행동 뿐 아니라, 이후의 공격적 행동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Esposito, Bacchini, Eisenberg, & Affuso, 2017; van der Voort, Linting, Juffer,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2013). 특히, 의도적 통제는 주도적 공격성이 아닌, 반응적 공격성만을 부정적으로 예측하였다(Rathert et al., 2011).

한편,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을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자동적 편향을 지니며 그 결과 더 많은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의도적 통제는 지각된 적대적 도발에 대해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 요구되는 인지과정이다(Runions & Keating, 2010; Wilkowski & Robinson, 2010).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의도적이라고 판단하는 ‘의도성 편향(intentionality bias)’을 지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도적 통제와 같은 부수적인 처리과정을 필요로 한다(Rosset, 2008). 마찬가지로 통합적 인지모형에 따르면, 상황을 더 오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더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등의 추가적 인지처리가 적대적 귀인편향을 향한 자동적 경향성을 제거할 수 있다. 즉, 의도적 통제는 상황을 비적대적인 해석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도우며(Wilkowski & Robinson, 2010), 결과적으로 적대적 귀인편향으로 인한 반응적 공격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의도적 통제의 주의 지속이나 전환 능력은 피해자 정의민감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적 연구에서 ADHD 증상

이 있는 10-19세 청소년들은 피해자 정의민감성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Bondü & Elsner, 2015), 성인 연구이긴 하나 ADHD 부주의형인 성인들이 과잉행동형인 성인들에 비해 정의민감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Schäfer & Kraneburg, 2012). ADHD 증상, 특히 주의력 결핍은 다양한 사회적 단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보다는 자신을 향한 부당한 대우나 불공정성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며, 의도적 통제는 이러한 경향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을 경우에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적대적 귀인편향,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학생의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적대적 귀인편향이 매개하는가?
2. 중학생의 피해자 정의민감성, 적대적 귀인편향,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의도적 통제가 조절하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중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정보로 무작위로 연락을 한 서울 소재 중학교 중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세 학교에 435부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안내문에 따라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설문 응답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42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1학년은 222명(52.9%), 2학년은 148명(35.2%), 3학년은 50명(11.9%)이었고, 남학생 220명(55%), 여학생 200명(45%)으로 구성되었다. 평균 연령은 13.05세였다( $SD=0.89$ ). 학생들이 지각한 가정 경제 수준(SES)은 5점 척도(1점: 하 - 5점: 상)에서 평균 3.47점( $SD=0.82$ )으로 '중상'에 해당되었다.

### 측정도구

#### 피해자 정의민감성

Schmitt, Gollwitzer, Maes와 Arbach(2005)이 개발한 성인용 정의민감성 척도를 Bondü와 Elsner(2015)가 아동·청소년용으로 수정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의민감성의 세 가지 핵심특성인 정서적 반응(예, 분노), 지각된 압박감(예, 참을 수 없음), 사고의 침입성(예, 오래도록 생각함)이 문항에 반영되며, 관점에 따라 피해자, 가해자, 관찰자 정의민감성의 세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정의민감성 하위척도 5문항을 한국어-영어에 능통한 심리학과 석사과정생 두 명과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이중 역번역을 통해 번역한 뒤 사용하였다.

피해자 정의민감성 척도는 자신이 불공정을 경험하는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예, 내가 받아야 할 칭찬을 다른 사람이 받으면 화가 난다)를 측정하며, 6점 척도(0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매우 동의한

다)로 평정케 한다. 5문항 총합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2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Bondü와 Elsner(2015)의 9-17세 독일 학생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8,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 의도적 통제

Ellis와 Rothbart(2001)의 초기 청소년용 기질척도-개정판(Early Adolescent Temperament Questionnaire-Revised, EATQ-R) 하위척도 중 장희순(2012)이 타당화한 의도적 통제 척도(13문항)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의 기질적인 자기통제 수준(예, 나는 숙제할 때 집중하는 것이 쉽다)을 측정하며, 주의, 억제적 통제, 활성화적 통제의 세 가지 하위유형을 포함한다.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정말 그렇다)로 총합점수를 사용하였으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13점~6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통제를 잘 함을 의미한다. 장희순(2012)의 초등학교 5-6학년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 적대적 귀인편향

Crick(1995)의 가설적 상황도구(hypothetical situation instrument)를 활용하되 응답 방식을 수정한 심은진(201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즉, 심은진(2011)은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열 개의 가설적 상황(예, 점심시간에 어떤 아이가 물 컵을 들고 오다 내 옷에 다 쏟아버리는 상황)을 제시한 뒤, 각 상황 속 상대방의 의도가 얼마나 적대적인지 4점 척도(1점=절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4점=분명 일부러 그런 것이다)에 응답하게 하였다. 총합점

수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적 귀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이다. 신애규(2018)의 중학생 연구와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88, .82이었다.

### 반응적 공격성

Raine 등(2006)이 개발한 반응적-주도적 공격성 설문지(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RPQ)를 오인수(201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중 하위척도인 반응적 공격성 11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예,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면 그들에게 소리를 지른다.) 3점 척도(0점=전혀 없다-2점=자주)로 평정하며, 높은 점수는 반응적 공격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총합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0점에서 22점 사이이다. 안지현, 이승연(2013)의 중학생 1-2학년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alpha=.75$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alpha=.73$ 으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 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Mplus 7.0을 이용하였다. 모형 추정을 위해 '완전 정보 최대 우도법(FIML)'을 사용하였다.

안정적인 모형 추정을 위해 척도들의 측정오차를 줄이고자 문항묶음을 사용하였으며, 의도적 통제는 각 하위요인의 문항을 묶는 내용기반 알고리즘 방식, 하위요인이 없는 피해자 정의민감성, 적대적 귀인편향, 반응적 공격성은 요인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하여 세 개의

지표변수로 구성하였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다집단 분석을 위해서 의도적 통제 점수의 상위 30%, 하위 30%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집단(총점 50점 이상)은 131명(26.7%), 저집단(총점 41점 이하)은 127명(30.2%)으로 구성되었다. 매개효과는 부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적대적 귀인편향( $r=.38, p<.01$ ), 반응적 공격성( $r=.45, p<.01$ )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의도적 통제는 피해자 정의민감성( $r=-.37, p<.01$ ), 적대적 귀인( $r=-.34, p<.01$ ), 반응적 공격성( $r=-.55, p<.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주요 변인에서 의도적 통제 고·저 집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표 2), 의도적 통제 고집

단의 피해자 정의민감성( $t=6.56, p<.001, d=.82$ ), 적대적 귀인편향( $t=5.98, p<.001, d=.74$ ), 반응적 공격성( $t=10.71, p<.001, d=1.34$ )의 수준은 모두 의도적 통제 저집단보다 더 낮았고, 효과 크기는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Cohen, 1988).

의도적 통제 고·저 집단 각각에서 상관분석 결과, 의도적 통제 고·저 집단 모두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적대적 귀인편향( $r_{고집단}=.33, r_{저집단}=.39, p<.01$ ), 반응적 공격성( $r_{고집단}=.39, r_{저집단}=.44, p<.01$ )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적대적 귀인편향도 반응적 공격성( $r_{고집단}=.38, r_{저집단}=.26,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Fisher's Z 검증 결과 변인 간 관계에서 고·저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피해자 정의민감성, 적대적 귀인편향, 반응적 공격성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에 따라, 구조모형의 검증에 앞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측정변인들의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으며, 왜도는  $-.645 \sim 1.166$ , 첨도는  $-.905 \sim 1.011$ 로 나

표 1. 주요변인 간의 상관분석( $N=420$ )

|               |      | 1      | 2      | 3      | 4     | 5    |
|---------------|------|--------|--------|--------|-------|------|
| 1. 피해자 정의 민감성 |      | -      | -      | -      | -     | -    |
| 2. 적대적 귀인편향   |      | .38**  | -      | -      | -     | -    |
| 3. 반응적 공격성    |      | .45**  | .35**  | -      | -     | -    |
| 4. 의도적 통제     |      | -.37** | -.34** | -.55** | -     | -    |
| 5. 가정 경제 수준   |      | -.11*  | -.07   | -.16** | .19** | -    |
| 기술통계          | M    | 11.62  | 22.80  | 6.48   | 45.26 | 3.47 |
|               | (SD) | 5.86   | 5.29   | 4.31   | 8.13  | .82  |

\*\* $p<.01$



표 2. 의도적 통제 집단별 주요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               |             | 1             | 2             | 3          |
|---------------|-------------|---------------|---------------|------------|
| 1. 피해자 정의 민감성 |             | -             | -             | -          |
| 2. 적대적 귀인편향   |             | .33** (.39**) | -             | -          |
| 3. 반응적 공격성    |             | .39** (.44**) | .38** (.26**) | -          |
| 기술통계          | <i>M</i>    | 9.46(14.28)   | 20.56(24.52)  | 4.30(9.79) |
|               | <i>(SD)</i> | 6.35(5.43)    | 5.14(5.50)    | 3.33(4.63) |
| <i>t</i>      |             | 6.56***       | 5.98***       | 10.71***   |

주, 상관분석에서 고집단(131명)은 괄호 밖, 저집단(127명)은 괄호 안에 표기함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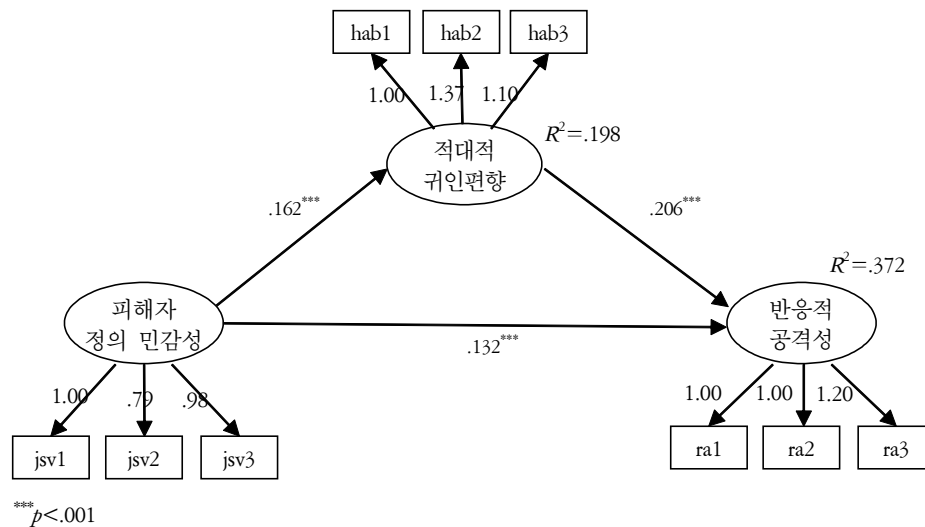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표준화 계수와  $R^2$

타나 Kline(2011)의 단변량 정규성 기준(왜도  $\leq |3|$ , 첨도  $\leq |10|$ )을 만족시켰다. 이어서,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24, n=420)=44.948, p < .01$ 로 모형이 자료에 부합한다는 영가설은 기각하였지만, CFI는 .984, SRMR은 .031, RMSEA는 .046(90% CI: .024-.066)으로 좋은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켰다(Hu & Bentler, 1999). 한편,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가

.60~.90으로 Fornell과 Larcker(1981)의 .50 초과 기준을 충족하여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도 .44~.57로 Kline(2011)의 .90미만 기준을 충족시키므로 변별타당도가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2단계로 연구가설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고, 모형적합도 결과는 측정모형의 결과와 동일하였다(그림 1). 구조모

형 분석 결과,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적대적 귀인편향( $\gamma=.162, p<.001$ ), 적대적 귀인편향은 반응적 공격성( $\beta=.206, p<.001$ )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반응적 공격성을 정적으로 직접 예측하였다( $\gamma=.132, p<.001$ ). 구조모형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각각 19.8%, 37.2%였다.

#### 의도적 통제 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다집단 분석을 위해 Bollen(1989)과 Kline(2011)의 제안에 따라 형태동일성, 측정(단위)동일성, 경로계수 동일성을 순서대로 확인하였다. 먼저, 의도적 통제 고·저집단 간 형태동일성 모형을 추정한 결과,  $\chi^2(df=48, n=258)=60.508, p=.106$ , CFI는 .983, SRMR은 .048, RMSEA는 .045(90% CI: .000-.077)로 두 집단 간에 요인구조가 동일하다는 형태동일성 가정이 확보되었다.

이어서, 형태동일성을 만족한 상태에서 요인부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동일성 모형을 추정한 결과,  $\chi^2(df=54, n=420)=68.772, p=.085$ 이었다. 측정동일성 확인을 위해 측정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형태동일성)의  $\chi^2$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diff=6)=8.264, p=.22$ 로

유의수준 5%에서  $H_0$ 을 기각하는데 실패하여 완전 측정 동일성을 만족하였다. 즉, 의도적 통제 고·저집단간 동일한 구조 모형을 적용하였다(표 3).

마지막으로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잠재변수 간의 경로 세 개를 차례대로 비교한 결과(Kenny, 2011), 피해자 정의민감성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으로 향하는 경로와 피해자 정의민감성에서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만 동일성 제약모형과 기저모형(측정동일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5$ ), 적대적 귀인편향에서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

이 때 의도적 통제 고집단의 경우 피해자 정의민감성에서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 $\gamma=.070, p<.01$ )와 피해자 정의민감성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으로 가는 경로( $\gamma=.100, p<.01$ ), 적대적 귀인편향에서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 $\beta=.225, p<.01$ ) 모두 유의하였다. 반면, 의도적 통제 저집단에서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에서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 $\gamma=.194, p<.001$ )와 피해자 정의민감성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였지만( $\gamma=.228, p<.001$ ), 적대적 귀인편향에서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beta=.076, p=0.405$ ). 다집단 분석 결과, 피해자

표 3. 의도적 통제 고·저 집단 간, 측정 동일성 검정 및 경로계수의 동일성 검정

| 경로               | $\chi^2$ | df | CFI   | $\Delta\chi^2$ | $\Delta df$ | p    |
|------------------|----------|----|-------|----------------|-------------|------|
| 형태동일성            | 60.508   | 60 | 0.983 |                |             |      |
| 측정동일성(기저모형)      | 68.772   | 54 | 0.980 | 8.264          | 6           | 0.22 |
| 피해자민감성 → 적대적귀인편향 | 73.686   | 55 | 0.975 | 4.914          | 1           | <.05 |
| 적대적귀인편향 → 반응적공격성 | 70.590   | 55 | 0.979 | 1.818          | 1           | 0.18 |
| 피해자민감성 → 반응적공격성  | 75.214   | 55 | 0.973 | 6.442          | 1           | <.05 |

표 4. 의도적 통제 고·저집단별 구조모형 모수 추정치

| 경로              | 비표준화    |          | 표준오차  |       | 표준화   |       |
|-----------------|---------|----------|-------|-------|-------|-------|
|                 | 고       | 저        | 고     | 저     | 고     | 저     |
| 피해자민감성 →적대적귀인편향 | 0.100** | 0.228*** | 0.035 | 0.055 | 0.312 | 0.501 |
| 적대적귀인편향 →반응적공격성 | 0.225** | 0.076    | 0.069 | 0.049 | 0.361 | 0.099 |
| 피해자민감성 →반응적공격성  | 0.070** | 0.194*** | 0.022 | 0.091 | 0.351 | 0.554 |

주. 측정(단위) 동일성이 성립한 상태임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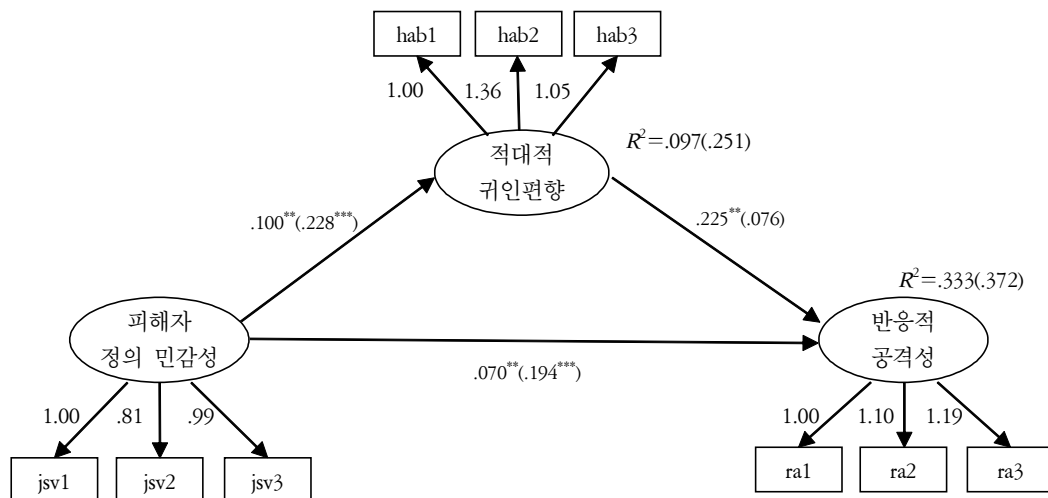


그림 2. 의도적 통제 고·저집단별 모형

주. 측정(단위) 동일성이 성립한 상태임. 경로계수는 비표준화계수임. 고집단(131명)은 괄호 밖, 저집단(127명)은 괄호 안에 표기함, \*\* $p < .01$ , \*\*\* $p < .001$

정의민감성에서 적대적 귀인편향 또는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두 경로는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을 경우에 더 강력하였다(표 4).

#### 매개효과 분석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원자료로부터 10,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MacKinnon, Lockwood, & Williams, 2004). 그 결과, 전체 집단의 경우 95% 부스트래핑 신뢰구간(.052-.176)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표 5). 다음으로 의도적 통제 고·저집단 별로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는 의도적 통제 고집단에서는 유의한 반

표 5. 연구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           |   | 경로                                | 직접<br>효과 | 간접<br>효과 | 95% 신뢰구간 |      |
|-----------|---|-----------------------------------|----------|----------|----------|------|
| 전체 집단     |   | 피해자 정의민감성 → 적대적 귀인편향 →<br>반응적 공격성 | .451***  | .114***  | .052     | .176 |
| 의도적<br>통제 | 고 | 피해자 정의민감성 → 적대적 귀인편향 →<br>반응적 공격성 | -        | .022*    | .001     | .060 |
|           | 저 | 피해자 정의민감성 → 적대적 귀인편향 →<br>반응적 공격성 | -        | .017     | -.033    | .110 |

주. \* $p < .05$ , \*\*\* $p < .001$ ,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 경로계수임.

면(95% bootstrapping CI: 0.001, 0.060), 저집단에 서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95% bootstrapping CI: -0.033, 0.110). 두 집단의 매개효과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B_{diff} = -0.007$ ,  $p = .863$ ).

##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반응적 공격 성의 기제를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피해자 정의민감성이라는 변인에 주목 하고, Gollwitzer와 Rothmund(2009)의 SeMI model 에 근거하여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적대적 귀 인편향에 영향을 줌으로써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기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때 의도적 통제를 조절변인으로 상정하여, 의도 적 통제의 수준에 따라 변인들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 성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부분매개효

과가 유의하였다. 즉,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반 응적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예측할 뿐 아니라,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을 간 접적으로도 예측하였다. 이는 피해자 정의민 감성이 높은 것이 아동·청소년, 성인 연구 모두에서 반응적 공격성을 정적으로 예측했던 선행연구 결과(Bondü & Krahé, 2014; Bondü & Richter, 2016)와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Gollwitzer와 Rothmund(2009)의 SeMI model을 반영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 은 사람은 ‘신뢰할 수 없음’을 신호하는 상황 적 단서에 더 민감하여 사회적으로 모호한 상 황에서조차 부당함이나 불공정을 더 쉽게 지 각하며, 그 경우 의심하는 마인드셋이 활성화 되면서 상대의 의도를 비열하고 적대적인 것 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적대적 해석이 상대에게 비협조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반응적 공격성에도 해당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 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적대적 귀 인편향을 통한 간접효과에 비해 더 강력했다 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는

추상적 사고능력의 발달과 함께 정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며, 특히 자신에 대한 증가된 관심으로 인해 자신의 이득과 관련된 피해자 정의민감성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Bondü & Elsner, 2015). 이렇게 증가한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불공정한 상황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공격적 행동을 증폭시킨다(Schmitt & Dörfel, 1999). 적대적 귀인편향이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긴 하지만, 이러한 간접효과 보다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의 직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아마도 적대적 귀인편향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가 사회정보처리모형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설명으로 부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de Castro, Veerman, Koops, Bosch와 Monshouwer (2002)은 메타분석을 통해 적대적 귀인과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간 연합의 평균 효과크기가 .17로 낮음을 발견한 바 있다. 적대적 귀인편향은 비공격적인,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 등 내재화 문제와도 연합되어 있음이 보고되었고(Burgess, Wojslawowicz, Rubin, Rose-Krasnor, & Booth-LaForce, 2006; Quiggle, Garber, Panak, & Dodge, 1992), 적대적 귀인편향과 공격성 간의 연합을 가능케 하는 조절변인의 존재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Runions와 Keating (2010)의 초등학교 1학년 연구에 따르면, 적대적 의도귀인은 그 자체로는 어머니가 평정한 공격성 수준을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분노가 강하면서 억제적 통제력이 약한 아동의 경우 적대적 의도귀인이 공격성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억제적 통제는 앞서 설명했듯이 의도적 통제의 하위요인에 해당한다(Posner & Rothbart, 2000).

본 연구에서 의도적 통제의 수준에 따라 피해자 정의민감성, 적대적 귀인편향,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경우에 비해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적대적 귀인편향의 관계,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모호한 상황에서조차 불공정이나 부당함을 신호하는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되어 의심하는 마인드셋이 활성화되고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귀인하게 된다(Gollwitzer & Rothmund, 2009) 그러나 의도적 통제력이 강한 경우, '신뢰할 수 없음'과 '신뢰할 수 있음'의 단서에 균형적으로 주의를 재분배하는 등, 다양한 상황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면서 상대의 의도를 비열하고 적대적인 것으로 자동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Gollwitzer & Rothmund, 2009; Wilkowski & Robinson, 2010). 의도적 통제력이 약한 것은 피해자 정의민감성으로 인한 자동적인 적대적 귀인 경향성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게 되고, 두 변인 간 관련성은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반응적 공격성을 더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것은 부당함과 관련된 사회적 단서에 과도한 각성상태를 초래하며, 부당함을 신호하는 단서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불공정 개념이 더 쉽게 활성화된다(Baumert, Gollwitzer, Staubach, & Schmitt, 2010). 이 경우 부당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

강하게 기대하게 되고(Baumert et al., 2010),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자기 방어나 보복을 위한 공격성이 나타나게 된다. 장희순, 이승연(2013)은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지각된 위협에 지나치게 각성되어 있고, 이러한 과각성이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반응적 공격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는 의도적 통제가 강할 경우 약화되었다. 즉, 부당함의 단서에 대한 지나친 각성을 주의전환이나 긍정적 인지재구조화를 통해 조절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링하여 환경 자극에 대한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우세한 반응’을 억제할 수 있게 될 경우(Muris, Meesters, & Blijlevens, 2007), 피해자 정의민감성으로 인한 반응적 공격성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의도적 통제는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적대적 귀인편향,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통제는 타고난 기질적 측면이기도 하지만, 훈련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isenberg et al., 2005; 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예를 들어, 학령전기 아동 대상 실행기능 훈련 프로그램인 Tools of the Mind curriculum은 자기-조절적 사적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크게 이야기하도록 하거나, 연극 놀이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Diamond, Barnett, Thomas, & Munro, 2007),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작업기억 훈련은 ADHD를 지닌 7-15세 아동들의 작업기억 뿐 아니라 불필

요한 운동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시켰고, 이러한 효과는 ADHD가 없는 남자 대학생들에게서도 관찰되었다(Klingberg, Forssberg, & Westerberg, 2002). 또한 30분간의 에어로빅 프로그램이 13-14세 아동의 작업기억, 인지적 융통성, 주의와 행동억제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Kubesch et al., 2009).

한편, 부모의 의도적 통제능력 및 양육방식은 자녀의 의도적 통제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4세 때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는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방식을 통해 6세 때 자녀의 의도적 통제를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는 거칠고 통제적인 훈육을 줄임으로써 자녀의 의도적 통제 능력에 기여한 바 있다(Kim & Kim, 2018). 많은 연구자들은 체벌이나 학대와 같은 강압적 양육 방식 대신 긍정적이고 온화한 양육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과 함께 부모의 의도적 통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경우 자녀의 의도적 통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재희, 김현경, 이희선, 2017; Chang, Olson, Sameroff, & Sexton, 2011; Eisenberg et al., 2005; Valiente, Lemery-Chalfant, & Reiser,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반응적 공격성의 경로에서 의도적 통제의 조절 효과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통제의 수준이 높은 경우 적대적 귀인편향은 반응적 공격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지만, 의도적 통제의 수준이 낮은 경우 적대적 귀인편향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는 아예 유의하지 않았다. 물론 이 경로에서 의도적 통제 고·저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그 양상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가능한 설명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을 때, 상황을 적대적으로 귀인 하는 것은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는 적대적 귀인편향으로 인해 가능한 불공정 상황에 대해 반추적 주의가 증가하고 분노가 증폭되면서 반응적 공격성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Wilkowski & Robinson, 2010), 적대적 귀인편향이 우울이나 불안 등 내재화 문제 역시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Burgess et al, 2006; Quiggle et al., 1992)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의도적 통제가 약할 경우 불공정 상황으로부터의 주의 분산이 어렵게 되면서 분노 뿐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등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정서는 공격적 행동보다는 신중하고 회피적인 행동에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낮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 특히 주의력 통제가 약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불안, 우울 등 내재화 문제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Dyson, Robertson, & Wong, 2015; Muris, Meesters, & Rompelberg, 2007; Muris, van der Pennen, Sigmond, & Mayer, 2008), 청소년기 이전에 좌절이 심하고 의도적 통제가 약한 경우 청소년기 동안 불안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Oort, Greaves-Lord, Ormel, Verhulst, & Huizink, 2011). 이러한 불안이 회피나 위축과 연관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즉, 적대적 귀인편향이 높을 때(일종의 좌절) 의도적 통제가 약한 것이 이러한 내재화 증상을 높이면서 반응적 공격성과의 연합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 통제 수준이 강한 경우에는 적대적 귀인편향과 반응적 공격성의 정적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14세 집단에서 좌절이 반응적인 관계적 공격성을 높이는 관계가 의도적 통제가 강할 경우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났던 Dane과 Marini(2014)의 연구와 유사하다. Dane과 Marini(2014)의 연구에서 15-19세 청소년 집단에서는 예상대로 좌절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관계가 의도적 통제가 약할 경우에 더 강력하였으며,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 반응적 공격성이 사회적 선호도와 지각된 인기도를 모두 낮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를 억제하려고 동기화되고 의도적 통제가 이 과정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Dane과 Marini는 10-14세 집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도적 통제가 높을 경우 적대적 귀인편향에서 유발되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가 조절되면서 공격적 상황을 덜 회피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Runions & Keating, 2010)과 초기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이 주로 낮은 지각된 인기도와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동시에 지위가 높은 것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던 Stoltz 등(2015)의 발견으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또래의 도발이나 위협에 무조건 참고 억제하는 것보다는 이에 자기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유지에 더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의도적 통제가 높은 경우에 오히려 적대적 귀인편향이 반응적 공격성을 높이는 양상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는 의도적 통제가 높은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의 또는 공정성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소개된 적이 없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이라는 변인을 소개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특히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제했을

때에도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여전히 유의하게 중학생의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함을 보여줌으로써 반응적 공격성 연구에서 이 변인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것이 적대적 귀인편향이나 반응적 공격성을 높이는 관계가 의도적 통제가 강할 경우 약화됨을 보여줌으로써, 반응적 공격성을 줄이기 위한 개입 시, 의도적 통제능력의 증진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적대적 귀인편향으로 인한 반응적 공격성에만 초점을 기울이면서 적대적 귀인편향으로 인한 내재화 증상의 역할에 대해 간과하였다거나 반응적 공격성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주도적 공격성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또한 반응적 공격성의 형태를 함께 고려하여(반응-외현적 공격성, 반응-관계적 공격성)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역시 후속 연구를 통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Raine 등(2006)의 도구는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지 않았기에 분석이 불가능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반응적 공격성 수준이 매우 낮게 나왔던 것은 결과의 해석에서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동일 도구를 사용한 일반 중학생 대상의 연구(예, 안지현, 이승연, 2013, Fung, Raine, & Gao, 2009, Seah & Ang, 2008)에서 반응적 공격성 수준은 매우 낮게 나오고 있지만(각각 7.48, 7.2, 4.71), 반응적 공격성의 기제를 보다 타당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추후에는 반응적 공격성이 높은 비행 청소년집단이나 임상집단을 사용하여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횡단연구에 기초하기 때문에, 종단연구를 통

해 변인 간 관계를 재검증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김윤경, 이옥경 (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65-82.
- 김재희, 김현경, 이희선 (2017). 아버지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8(3), 19-32.
- 도금혜, 최보가 (2007). 청소년의 또래집단이 지각한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18(1), 107-134.
- 도금혜, 최보가, 이지민 (2005). 청소년의 사회 측정적 인기도 및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2), 57-67.
- 신애규 (2018).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광유미, 김선미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47-366.
- 심은신 (2011). 여중생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희옥 (2008).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정서에 관한 연구-성별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3), 191-205.
- 안지현, 이승연 (2013).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



- 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1), 61-84.
- 오인수 (2010).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공감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1), 45-63.
- 장희순 (2012).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희순, 이승연 (2013).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19-48.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rker, E. D., Tremblay, R. E., Nagin, D. S., Vitaro, F., & Lacourse, E. (2006). Development of male proactive and reactive physical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8), 783-790.
- Bas, A. U., & Yurdabakan, İ. (2012). Factor structure of the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in Turkish children and gender, grade-level, and socioeconomic status difference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30(3), 284-297.
- Baumert, A., Gollwitzer, M., Staubach, M., & Schmitt, M. (2010). Justice sensitivity and the processing of justice-related in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5(5), 386-397.
- Baumert, A., Otto, K., Thomas, N., Bobocel, D. R., & Schmitt, M. (2012). Processing of unjust and just information: Interpretation and memory performance related to dispositional victim sensitivit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6(2), 99-110.
- Björkqvist, K., Lagerspetz, K. M., & Kaukiainen, A. (1992). Do girls manipulate and boys fight? Developmental trends in regard to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8(2), 117-127.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Bondü, R., & Elsner, B. (2015). Justice sensitivit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24(2), 420-441.
- Bondü, R., & Krahé, B. (2014). Links of justice and rejection sensitivity with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41(4), 353-368.
- Bondü, R., & Richter, P. (2016). Interrelations of justice, rejection, provocation, and moral disgust sensitivity and their links with the hostile attribution bias, trait anger, and aggression. *Frontiers in Psychology*, 7, 795.
- Burgess, K. B., Wojslawowicz, J. C., Rubin, K. H., Rose-Krasnor, L., & Booth-LaForce, C. (2006).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ping strategies of shy/withdrawn and aggressive children: Does friendship matter? *Child Development*, 77(2), 371-383.
- Card, N. A., & Little, T. D. (2006).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sis of differential

- relations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5), 466-480.
- Chang, L., Olson, S. L., Sameroff, A., J., & Sexton, H. R. (2011). Child effortful control as a mediator of parenting practices on externalizing behavior: Evidence for a sex-differentiated pathway across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schoo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1), 71-81.
- Cillessen, A. H., Lansu, T. A., & Van Den Berg, Y. H. (2014). Aggression, hostile attributions, status, and gender: A continued ques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6(3), 635-644.
- Cillessen, A. H., & Mayeux, L. (2004). From censure to reinforcement: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role of aggression in peer relations. *Child Development*, 75(1), 147-163.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Erlbaum.
-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22), 313-322.
- Crick, N. R., & Dodge, K. A. (1996).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 o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3), 993-1002.
- Dane, A. V., & Marini, Z. A. (2014). Overt and relational forms of re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s: Relations with temperamental reactivity and self-reg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0, 60-66.
- De Castro, B. O., Veerman, J. W., Koops, W., Bosch, J. D., & Monshouwer, H. J. (2002). Hostile attribution of intent and aggressive behavior: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73(3), 916-934.
- Diamond, A., Barnett, W. S., Thomas, J., & Munro, S. (2007). Preschool program improves cognitive control, *Science*, 318(5855), 1387-1388.
- Dodge, K. A. (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 (Ed.), *Minnesota symposia child psychology, volume 18*(pp. 77-125).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odge K. A. (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D. J. Pepp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201-218). Hillsdale, NJ: Erlbaum.
- Dyson, R., Robertson, G. C., & Wong, M. M. (2015). Brief report: Peer group influences and adolescent internalizing problems as mediated by effortful control. *Journal of Adolescence*, 41, 131-135.
- Eisenberg, N., Spinrad, T. L., & Eggum, N. D. (2010). Emotion-related self-regulation and its relation to children's maladjustmen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1), 495-525.
- Eisenberg, N., Zhou, Q., Spinrad, T. L., Valiente, C., Fabes, R. A., & Liew, J. (2005). Relation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6(5), 1055-1071.
- Ellis, L. K., & Rothbart, M. K. (2001, April). *Revision of the early adolesc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MN.
- Esposito, C., Bacchini, D., Eisenberg, N., & Affuso, G. (2017). Effortful control,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and aggressive behavior: Exploring cross-lagged relations in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43(6), 588-600.
- Fite, P. J., Rathert, J., Colder, C. R., Lochman, J. E., & Wells, K. C. (2012).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mplications for adolescent adjustment. In R. J. Levesque (Ed.), *Encyclopedia of adolescence* (pp. 2164-2170). New York, NY: Springer.
- Fite, P. J., Rubens, S. L., Preddy, T. M., Raine, A., & Pardini, D. A. (2013).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males: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 and peer relationships. *Aggressive Behavior*, 40(1), 69-78.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
- Fung, A. L. C., Raine, A., & Gao, Y. (2009). Cross-cultural generalizability of the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RPQ).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5), 473-479.
- Gollwitzer, M., & Rothmund, T. (2009). When the need to trust results in unethical behavior: The sensitivity to mean intentions (SeMI) model. In C. D. de Cremer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ethical behavior and decision making* (pp. 135-152). Charlotte, NC: Information Age.
- Gollwitzer, M., & Rothmund, T. (2011). What exactly are victim-sensitive persons sensitive to?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5), 448-455.
- Gollwitzer, M., Rothmund, T., & Süssenbach, P. (2013). The sensitivity to mean intentions (SeMI) model: Basic assumptions, recent findings, and potential avenues for future research.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7(7), 415-426.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enny, D. A. (2011). *Multiple groups*. Retrieved from <http://davidakenny.net/cm/mgroups.htm>
- Kim, J., & Kim, H. K. (2018).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ffortful control in families with school-age children in Kore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Advance online publication.
- Kline, R. B. (2011). Convergen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level modeling. In M. Williams & W. P. Vogt (Eds.), *The SAGE handbook of innovation in social research methods* (pp. 562-589). Thousands Oaks, CA: SAGE.
- Klingberg, T., Forssberg, H., & Westerberg, H. (2002). Training of working memory in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Neuropsychology*, 24(6), 781-791.
- Kochanska, G., Murray, K. T.,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20-232.

- Kubesch, S., Walk, L., Spitzer, M., Kammer, T., Lainburg, A., Heim, R., & Hille, K. (2009). A 30-minute physical education program improves students' executive attention. *Mind, Brain, and Education*, 3(4), 235-242.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9(2), 151-173.
- Lobbestael, J., Cima, M., & Arntz, A.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hostile interpretation bias,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7(1), 53-66.
- Loveland, J. M., Lounsbury, J. W., Welsh, D., & Buboltz, W. C. (2007). The validity of physical aggression in predicting adolescent academic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1), 167-176.
- MacKinnon, D. P., Lockwood, C. M., & Williams, J. (2004). Confidence limits for the indirect effect: Distribution of the product and resampling method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1), 99-128.
- Mohiyeddini, C., & Schmitt, M. J. (1997). Sensitivity to befallen injustice and reactions to unfair treatment in a laboratory situation. *Social Justice Research*, 10(3), 333-353.
- Muris, P. (2006). Unique and interactive effects of neuroticism and effortful control on psychopathological symptoms in non-clinical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7), 1409-1419.
- Muris, P., Meesters, C., & Blijlevens, P. (2007). Self-reported reactive and regulative temperament in early adolescence: Relations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and "Big Three" personality factors. *Journal of Adolescence*, 30(6), 1035-1049.
- Muris, P., Meesters, C., & Rompelberg, L. (2007). Attention control in middle childhood: Relations to psychological symptoms and threat perception distortion.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45(5), 997-1010.
- Muris, P., van der Pennen, E., Sigmond, R., & Mayer, B. (2008). Symptoms of anxiety,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non-clinical children: Relationships with self-report and performance-based measures of attention and effortful control.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9(4), 455-467.
- Ojanen, T., Grönroos, M., & Salmivalli, C. (2005). An interpersonal circumplex model of children's social goals: Links with peer-reported behavior and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41(5), 699-710.
- Orobio de Castro, B., Merk, W., Koops, W., Veerman, J. W., & Bosch, J. D. (2005). Emotions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ir relations with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referred aggressive boy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4(1), 105-116.
- Posner, M. I., & Rothbart, M. K. (2000). Developing mechanisms of self-regul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3), 427-441.
- Quiggle, N. L., Garber, J., Panak, W. F., & Dodge, K. A. (1992).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6), 1305-1320.
- Raine, A., Dodge, K., Loeber, R., Gatzke-Kopp, L., Lynam, D., Reynolds, C., ... Liu, J. (2006). The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 boys. *Aggressive Behavior*, 32(2), 159-171.
- Rathert, J., Fite, P. J., & Gaertner, A. E. (2011). Association between effortful contro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2(5), 609-621.
- Rodkin, P. C., & Berger, C. (2008). Who bullies whom? Social status asymmetries by victim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2(6), 473-485.
- Rodkin, P. C., Espelage, D. L., & Hanish, L. D. (2015). A relation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bullying: Developmental antecedents and outcomes. *American Psychologist*, 70(4), 311-321.
- Rosset, E. (2008). It's no accident: Our bias for intentional explanations. *Cognition*, 108(3), 771-780.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 & W. Dam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99-166). New York, NY: Wiley.
- Runions, K. C., & Keating, D. P. (2010). Anger and inhibitory control as moderators of children's hostile attributions and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1(5), 370-378.
- Schmitt, M., Baumert, A., Gollwitzer, M., & Maes, J. (2010). The justice sensitivity inventory: Factorial validity, location in the personality facet space, demographic pattern, and normative data. *Social Justice Research*, 23(2-3), 211-238.
- Schmitt, M., & Dörfel, M. (1999). Procedural injustice at work, justice sensitivity, job satisfaction and psychosomatic well-be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4), 443-453.
- Schmitt, M., Gollwitzer, M., Maes, J., & Arbach, D. (2005). Justice sensitivity: Assessment and location in the personality spac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202-211.
- Schmitt, M. J., Neumann, R., & Montada, L. (1995). Dispositional sensitivity to befallen injustice. *Social Justice Research*, 8(4), 385-407.
- Schäfer, T., & Kraneburg, T. (2015). The kind nature behind the unsocial semblance: ADHD and justice sensitivity-A pilot study.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19(8), 715-727.
- Seah, S. L., & Ang, R. P. (2008).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sian adolescents: Relations to narcissism, anxiety, schizotypal traits, and peer relations. *Aggressive Behavior*, 34(5), 553-562.
- Stoltz, S., Cillessen, A. H., van den Berg, Y. H., & Gommans, R. (2016). Popularity differentially predicts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42(1), 29-40.
- Vaillancourt, T., Brendgen, M., Boivin, M., & Tremblay, R. (2002). A longitudinal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physical and indirect aggression: Evidence of two factors. *Child Development*, 74(6), 1628-1638.
  - Valiente, C., Lemery-Chalfant, K., & Reiser, M. (2007). Pathways to problem behaviors: Chaotic homes, parent and child effortful control, and parenting. *Social Development*, 16(2), 249-267.
  - van der Voort, A., Linting, M., Juffer, F.,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2013). Delinquent and aggressive behaviors in early-adopted adolescents: Longitudinal predictions from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sensitivit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5(3), 439-446.
  - Van Oort, F. V. A., Greaves-Lord, K., Ormel, J., Verhulst, F. C., & Huizink, A. C. (2011). Risk indicators of anxiety throughout adolescence: The TRAILS study. *Depression and Anxiety*, 28(6), 485-494.
  - Vijayakumar, N., Whittle, S., Dennison, M., Yücel, M., Simmons, J., & Allen, N. B. (2014). Development of temperamental effortful control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turation of the prefrontal cortex and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A 4-year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9, 30-43.
  - Vitaro, F., & Brendgen, M. (2012). Subtypes of aggressive behaviors: Etiologies,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In T. Bliesener, A. Beelmann, & M. Stemmler (Eds.), *Antisocial behavior and crime: Contributions of theory and evaluation research to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p. 17-38). Toronto: Hogrefe.
  - White, B. A., Jarrett, M. A., & Ollendick, T. H. (2012). Self-regulation deficits explain the link between reactive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5(1), 1-9.
  - White, B. A., & Turner, K. A. (2014). Anger rumination and effortful control: Mediation effects on reactive but not proactive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6, 186-189.
  - Wilkowski, B. M., & Robinson, M. D. (2010). The anatomy of anger: An integrative cognitive model of trait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78(1), 9-38.
  - Xie, H., Farmer, T. W., & Cairns, B. D. (2003). Different forms of aggression among inner-city African-American children: Gender, configurations, and school social network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1(5), 355-375.
- 1차원고접수 : 2018. 10. 15.  
수정원고접수 : 2018. 11. 22.  
최종게재결정 : 2018. 12. 03.

## The Relationship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Victim Justice Sensitivity,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Reactive Aggres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Effortful Control

Seung-yeon Lee

Yumi Lee

El-Lim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victim justice sensitivity (VJS), hostile attribution bias (HAB) and reactive aggression (RA) of middle-school students. Specifically, we investigated how the relationships of these variables var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ffortful control (EC). Self-reported data of 420 middle-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ndicated that HAB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VJS and RA in the total sample. Multigroup analysis was also conducted based on the level of EC (top/bottom 30%). Results indicated that HAB did not predict RA at low EC, while the mediation effect of HAB was only significant at high EC. A stronger EC significantly weaken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VJS and HAB, and between VJS and RA. This study supported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VJS in explaining RA and demonstrated the need to enhance EC to reduce HAB and RA resulting from VJS.

*Key words* : victim justice sensitivity, hostile attribution bias, reactive aggression, effortful control